

근기요산회 2월 산행

서울 구기동의 탕춘대능선 올라



▲ 근기요산회원들이 오찬에 들어 건배를 하고 있다.

안동권씨근기요산회近畿樂山會가 2월 정례산행을 서울 종로구 구기동 북한산 향로봉 밑의 탕춘대蕩春臺 능선을 오르는 것으로 행하였다. 2월 21

일 토요일 11시경에 구기동 입구 버스정류장 부근에 집결한 30여 회원은 자비사쪽의 등산로로, 상명여대 뒷산등성이로 연결되는 탕춘대성곽의 능선으

전주·완주종친회 신년하례회



▲ 전주완주종친회의 신년교례회가 열리고 있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지역의 안동권씨 전주완주종친회가 1월 30일 11시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소재 종친회관에서

기축년 신년하례회를 열었다. 원로종친과 임원진 및 종원 다수가 참석하였다. 권오덕權五德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개회

14년에서 계속

장악한 김준과 왕의 사이가 벌어진 것을 알고 환자宦者 강윤 소康允紹와 최은崔恩·김경金鏡과 함께 김준을 죽이고 그 여러 아들과 무리를 죽이거나 유배했다. 그뒤 김경·최은의 세력이 커지자 이들을 제거하고 어사대부 최계열崔季烈과 대장군 기온奇蘊을 유배시켰다. 이때 원나라와 화의가 진전되어 위치가 불안해지고 왕과의 사이도 벌어지자 삼별초와 육번도방六番都房을 거느리고 재추와 더불어 왕의 폐립을 논한 뒤 원종 대신 그 아우 안경공安慶公 창을 옹립하고자기는 교정별감이 되었다. 마침 원에 갔던 세자가 돌아오다가 압록강에서 이 소식을 듣고 되돌아 원의 서울 연경燕京으로 가니 이를 두려워하여 이장용李藏用을 절일사節使로 보내 세자를 돌아오게 했는데, 이장용이 연경에 가 왕의 폐립

사실을 진술하니 원에서 병부시랑兵部侍郎 흑적黑의 등을 보내 왕의 폐립 사실을 힐문했고, 임연은 원종을 복위시켰다. 이듬해 원종이 원의 연경에 들어가니 원종이 그 핍박받은 사실을 원의 조정에 누설할까 두려워 큰아들 임유간林惟幹을 따라 보내 왕을 호종扈從케 하였다. 그러나 원제元帝가 임연이 직접 연경에 와 진상을 해명하라 하므로 근심하다 병사했다. 아들 임유무가 청하여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추증되고 장렬莊烈의 시호도 받았다.

송군비宋君斐는 차라대車羅太의 몽고군이 전라도 연안도서에 침입하려 하자 고종 43년, 1256년 수군 300을 거느리고 남하해 영광에서 이광李廣과 연합전도 펴고 장성의 입암산성笠巖山城에 입보하여 성내의 장정이 속속 투항하는 상황에서도 기지로 몽고군을 대파하고 적장 4명을 사로잡았다. 원종 7년, 1266년에 몽고의 대

로 올라가 향로봉 밑의 중간 전망처까지에 이르렀다가 되돌아 내려와 이북오도청 쪽으로 하산하였다.

이날은 시산제始山祭 행사를 갖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전일이 반짝추위로서 기온이 급강하한데다 황사가 몰려오고 당일 아침 영하 7도가 된다는 일기예보에 놀라 예약했던 시산제 음식을 취소하고 산행도 간략히 하기로 했다. 그런데 막상 당일 오전에 기온이 오르며 맑은 날씨가 매우 좋았다. 모두가 뒤늦게 아쉬워했지만 시산제 준비를 다시 하기에는 늦은지라 다음달로 미루어 갖추어 행하기로 미루었다.

하산 후 점심 식사는 구기동 입구 집결처 인근의 ‘이조갈비’ 식당 2층의 너른 홀을 잡아서 하였다. 두부김치에 막걸리·해장국으로 그리 많이 시킨 것이 아는데 노인들의 상에서는 음식이 넉넉하여 남아났

되어 시조 태사공에 대한 망배에 이어 참석인 각자가 자기소개를 하면서 차례로 하례의 말과 인사를 드리고 덕담을 주고받았다.

권영평權寧平 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기축년 새해를 맞아 선대의 은덕을 기리며 모든 종친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같이하기를 기원한다. 우리 권문의 영원한 번영과 함께 세세년년 면면히 이어온 가통을 지켜가자는 요지를 말하고, 더하여 기축년 소의 해를 맞아 소와 관련된 역사와 고사도 들어 말하였다. 이어 권효택權孝宅 고문이 축사를 하여 종친간의 두터운 화목과 단합을 강조하는 격려의 말을 하고, 다음 회식의 자리에서는 권오덕 부회장이 화합과 건강의 건배를 제의하였다.

<權龍根 제공>

일초유사對日招諭使 흑적黑의과 은홍殷弘 등을 향도하여 시어사侍御史 김찬金贊과 함께 일본에 파견되었으나 거제도에서 되돌아와 풍랑의 험함을 이유로 몽고의 일본 정벌을 막고자 노력했다.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로 치사致仕했는데 고려 최후의 무인집권자 임유무 집권시 득세했기 때문에 1270년에 임유무가 죽고 왕정복고가 되면서 그 당여로서 유배되었다.

홍문계洪文系는 개명이 규奎이고 남양南陽 본관으로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 진縉의 아들이다. 원종 때 어사중승이 되었으며 매부 임유무 집정기에 송송례와 함께 자문역을 하다가 원종 11년, 1270년에 원나라에 있던 원종이 출륙환도를 명하고 귀환할 때 임유무가 왕을 배척하고 항전태세를 갖추자 왕의 밀지를 받아 송송례 등과 함께 삼별초를 동원해 임유무 등을 제거했다.

다. 담백한 음식맛이 씹 입에 들 맞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식대는 30여만원이 나왔는데 지난달 신년교례회 때 신입한 권혁채權赫采 회원이 전담하였다. 모든 회원이 의표를 찔린듯 괄목하며 박수를 보냈다.

다음달 3월 산행은 이번엔 못한 시산제를 제대로 행사하기로 하면서 같은 장소로 집결처를 정하고 승가사쪽 등산로로 올라가 행사를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4월 정례산행은 서해안 쪽으로 전세버스를 내어 원행을 기획해보자는 제의를 권중현權重炫 부회장이 발의하여 모두 동의하였고, 권수용權秀容 회원은 5월의 비수기에 염가로 5박6일의 백두산 관광을 제의했는데 이는 정기산행 외의 옵션행사로 기획해보기로 하였다.

<사진 權奇允·글 權炳逸>

이어 세자이던 충렬왕忠烈王을 수종하여 원경元京에 가 원제의 명으로 고려의 1품직에 오르고, 원의 좌부승선左副承宣의 직을 받았다. 귀국해서는 국정의 문란에 항의해 사직했다가 다시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의 요직에 기용되어 또 사직하니 이때 나이가 40전이였다. 뒤에 충렬왕과 그 비인 원의 공주가 양가의 여자女子를 징발하여 원에 보낼 때, 그 딸을 대상에서 기피시킨 죄로 해도海島에 유배되고 그 두 딸은 원에 뽑혀갔으며 가산이 적몰되었다. 그러나 중찬中贊 김방경金方慶과 중형 홍자번洪子蕃의 구명으로 가산이 반환되고 이윽고 유배에서 풀려났다. 풀려난 다음해에 첨의시랑찬성사僉議侍郎贊成事 판전리사사判典理司事로 치사致仕하였으나 뒤에 다시 중찬中贊을 더하고 이어서 판삼사사判三司事 수사도守司徒 영경령궁사領景靈宮事가 되었다. 충선왕忠宣王이 즉위하자 익성군益城君에 봉해지고 첨의정승僉議政丞 지익성부사知益城府事에 올랐으며 1316년 추성진력안정공신推誠陳力安定功臣 남양부원군南陽府院君 상의첨의도감사商議僉議都監事에 이르러 죽어 광정匡定의 시호를 받았다.

송송례宋松禮는 본관이 여산礪山이고 1270년에 직문하성사直門下省事로서 어사중승 홍문계와 함께 권신 임유무를 제거하고 그 당여를 제압하여 왕정을 복고시켰다. 뒤에 상장군이 되어 충렬왕이 되는 세자 왕십王諱을 수행하여 몽고에 갔다. 원종 13년, 1272년에 다시 원나라에 가 원이 국호를 몽고에서 원元으로 고친 것을 하례하고 돌아와 탐라耽羅의 삼별초를 토벌하기 위한 군사를 검열하는 한편 충청도지휘사指揮使가 되어 군사를 징발했다. 1273년에 동지추밀원사로 책봉



사冊封使가 되어 또 원에 다녀오고 이듬해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로 일본 정벌을 위한 군사를 징발·보충하였다. 충렬왕 즉위년, 1274년에 첨정동사僉征東使가 되어 제1차 일본정벌에 참여했고 그해 재추宰樞로서 각자여郭子瑊와 함께 몽고 풍속의 개제開剃(변발 髮)하는 일에 앞섰다. 찬성사중찬贊成事中贊으로 치사하였고 충렬왕 15년, 1289년에 죽어 정렬貞烈의 시호를 받았다.

제목 홍송주역洪宋誅逆은 홍문계와 송송례가 역도를 주살했다는 뜻이고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동치무지세집권童穉穉無知世執權：어린이 무지한 게 대를 이어 집권하여

매사인아총련견每私姻 摠連牽：매양 연인척과 연계되고 이끌리니

이인분탄군정원二人憤歎群情怨：두 사람이 분해 탄식하자 못사람 원성 높아

중견주이리고연終見誅夷理固然：끝내 오랑캐 주살하니 본디의 이치였네

간당섬제반사류奸 殲除半死流：간악한 무리 섬멸하여 반은 유배시키고

지연충신빙랑모只緣忠蓋聘良謀：다만 충성의 나머지로 어진 모의를 도모하니

군료정하환성비群僚庭賀 聲沸：모든 신료 궁정 하례에 기쁜 소리 들레이고

공업여사진과주功業如斯 寡：이와 같은 공업이야 짝할 자 적다 하네